■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더 할 수 없는 만족 성경: 시편 17편 6-15절

Tag:

6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9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0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1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13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17:6-15)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불행하였다.

그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만족하며 살았다. 양 몇 마리와

기타가 그의 친구였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주목하였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에 마음에 들었다.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었고, 사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그는 겸손한 왕이었으나 차츰차츰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왕권에 대한 상실 불안감에 싸이게 된다.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항상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부족하고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실수 하면서, 경험하면서 점점 감당하는 삶을 산다 -에서와 야곱)
사울은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청와대(왕실) 수면유도 음악치료 비서관에 발탁된다. 다윗은 꽤 유명한 연주자였었나 보다. 얼마 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유명인사로 변하게 된다. 사울의 신임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거듭되는 다윗의 승전 소식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그러자 사울은 자신보다 더 인기가 높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다. 불면증+시기증(왕으로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음.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면 됨) 사울과 다윗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신감은 더욱 커져 갔고, 그만큼 사울의 불안감도 커져 갔다.

권력을 노린 자들과 왕실과 친분을 두텁게 하려는 자들로 인해서 다윗의 입지는 애매한 지경에 내 몰리게 되었다.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는 사울의 공약도 여러 번 흔들렸고, 어렵게 사위가 되긴 했어도 여전히 상황은 다윗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시편 17편 앞 부분에 보면, 다윗의 고뇌가 엿보인다.
아마 그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다윗은 매우 치밀한 자로서 나름대로 사울왕을 이어 왕이 되려는 계획을 잘 세워가고 있었고, 놀랍게도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도

다음 왕은 다윗이라고 여기게 될 정도로 다윗의 노력은 기이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특별했다. 요나단은 자신이 충동적 인물임을 잘알고 있었고, 그는 아버지 사울과 달리 다윗을 진정으로 깊이 의지하였다. 그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장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런 요나단의 꿈은 사울로 인해서 산산조각 났다. 요나단은 오직 다윗만이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자로 여기게 됨.

그러나 사울 만큼은 다윗과 정 반대의 입장이었다. 사울로서도 나름 고뇌가 깊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분위기가 다윗을 중심으로 뒤바뀌어져 가는 모습 때문에 그랬다.

사울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니 결과적으로는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의 사울의 고뇌가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의 고뇌이지 싶다. 뭘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

사울은 이제 모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다윗의 입장은 이렇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왕권을 물려 받아야 하는데, 사울이 자꾸만 정신병을 핑계로 엉뚱한 짓을 저지른다. 다윗은 그때 그때 위기를 잘 넘기고 있지만, 언제까지 매번 당해야 하는지 기약이 없다.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려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고 말지만, 그러기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1-5절까지는 다윗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이다.
-아마 사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신하들 앞에서 선전하였을 것이다.
-사울의 주변에는 사울 때문에 부자가 된 신하들로 가득하였다.
-그것을 전해들은 다윗은 속으로 억울함이 치솟았을 것이다.
-그는 다른 신하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1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하소서;전후 사정이 이러 저러 합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비난받아 마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서슴없이 악을 선택하나, 다윗은 결코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처지.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 그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사울왕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2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울은 왕이기에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숨겨진 내막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으로 사울왕을 통치하십시오.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알려져 있지 않는 모종의 사건이 밤중에 일어났을 것이다. 아마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결백이 증명되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다윗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의미. (요즘 윤석렬과 한동훈씨가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명박 다스 수사; 1심 무죄 판결; 채널A기자 취재윤리 위반사건 1심 무죄; 물고 물리는 세상사.)

4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어 주소서.

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9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다윗을 도우시는지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10-13절까지;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행하는 모든 불법과 악행들

14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악인들의 횡포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들은 자기편끼리 재물을 나눠먹는다.

-그들은 주의 재물(나랏돈으로)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의 부귀에 온통 마음을 쓰고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만족은 무엇인가?

1.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뵙기를 선택함. (구체적으로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뵙기를 선택함.)

-생사화복이 주께 있고, 구원과 부귀영화도 주께 있기 때문.

-지금 당장 내가 의분으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자신은 동족과 왕족을 건드리지 않기로 작정함.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 부하들은 환호할 것이고 나 또한 저들처럼 자기의를 선전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나 또한 저들처럼 악행을 따라해야 함.

-그러나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께서 직접 나를 보호해 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음.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선택함.

-그것이 고달프고 힘겨울 수 있어도, 이만한 만족이 세상에 없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심.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령의 사람 성경: 누가복음 2장 25-38절

Tag: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6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눅2:25-38)

25. 의롭고 경건한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37 안나)
시므온;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로움(의로움의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음, 시므온은 구약성경적 의로움-모세오경과 예언자 전통;바리새인적. 거짓예언이 아닌, 신령한 율법이 있음-살아있는 율법.)
에녹-다니엘-에스겔-사도요한;천사와 비슷한 영성
욥-모세-사무엘-다윗-엘리야-엘리사;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성
아모스-호세아-말라기-세례요한;정치적인 의로움에 민감한 영성
아브라함-이삭-야곱-여호수아-기드온;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영성
요셉-(솔로몬;에로스함정)-느헤미야-다니엘-에스더;통치자 영성, 행정적 올바름-단호함-강직한 의지, 바른생활영성
실패한 영성;발람, 엘리 제사장, 사울왕, 솔로몬

*경건함;스스로 영성을 지키고 개발하는 삶
-대부분의 성도는 목자의 영성에 의지하게 됨.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

25.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26.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그 계시를 잊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라.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각인지는 항상 주의하라.
-성령의 감동도 유산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원칙을 꼼꼼하게 지키라. 원칙이 무너지는 이유, 염려와 욕심, 정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약속을 확인하라